

사순 제 2주일

기도서 252면 (다해)

제1독서 : 창세 15, 5-12, 17-18

제2독서 : 필립 3, 17-4, 1

복 음 : 루가 9, 28b - 36

술정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자 난데 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었다”
(루가 9, 29).

강 론

이제는 내가 변해야 할 때

이 덕근 신부/금마천주교회

그리스도교는 근본 뿌리부터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자칫 사순절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속죄와 회개를 강조하기 때문이리라.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색다른 분위기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예수의 영광스런 변모사건 즉 변성용(성변용)되어진 일이다.

나자렛출신으로 제법 명석한 두뇌와 해박한 윤법이해, 가끔씩 신통력을 발휘하기에 비범한 사내인줄은 짐작했지만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신비하고 경이롭게 제자들에게 드러냈기에 그것은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그것도 제자들이 지친 전도여행에 헛 것을 본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할까봐 생각해서 확실히 “이는 내 아들, 내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하고 말씀까지 섞어서 하셨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결국 예수는 자신안에서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을 제자들에게 견지(見知)시켜줌으로써 스승에 대한 출신성분 때문에 논란되어진 그리스도의 신원파악이 일단락 되어지고 정통성 시비가 해결되어졌으며, 각기 제자들 자신에게는 우리들의 고행이 공연히 힘만 빼는 엉수고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으며, 그리스도제자이기에 구원에 대한 희망도 걸어볼만한 기쁨에 친 중대사였다.

오늘 교회가 지내는 사순절의 의미는 우선 세례로 택함을 받을 우리가 예수처럼 하느님 마음에 쏙 들도록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時俗에 얹매여져 때로는 세상과 사람들을 앞에서 교만하기도 비굴해지기도 한다. 약자에게는 항상 강한 힘을 발휘하고, 그러나 강자에게는 한없이 머리를 숙인다.

우리가 이렇게 떳떳치 못한것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도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인(필립3/20)”으로써 시민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번 사순시기 동안에 예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을 깨달으려는 노력, 우리들의 오욕철정을 포기하려는 희생, 그분을 뒤따르려는 사랑의 자세를 어느때 보다도 치열하게 몸싸움을 거행해야 할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게는 멋진 일입니다.(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간 6
1)

소 리

어떤 주교님이 오실까?

‘신부 오복(五福)’이란 말이 있다. 주교, 식당, 수녀, 회장, 동창 복(福)을 말하는 데, 그중 첫째로 꼽는 것이 주교복(福)이다. 즉 어떤 주교님과 함께 사느냐가 사제의 행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말이다. 이 어찌 사제들 뿐이겠는가? 주교와 일치하지 못하고 사는 사제와 함께 사는 교우 역시 불행하긴 마찬가지이다. 잘났건 못났건 부모를 부모처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곁에 있는 자식이 마음 편할리 없고, 자기 아버지 공경치 않는 아버지 공경할 자식 없겠기 때문이다.

이제 6년 만 동안 우리 삶 만 전주교구민을 돌보시기에 애쓰셨던 박 정일(미카엘) 주교님께서 떠나셨다. 전주교구는 6년 만에 또다시 주교 없는 교구가 된 것이다. 어려운 시기, 애만 쓰시다 가시는 주교님을 생각 할 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과 함께 죄송하고 황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하지만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떠나시는 주교님 이 시기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보내드려야겠다. 아무쪼록 새로운 임지에 가서서도 열과 선을 다하여 양떼를 돌보시므로써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장식하시기를 기도하자.

이제 우리가 문제다. 앞으로 새로운 주교님이 부임되어 오시기 까지는 빨라야 6개월, 아니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측된다.

정말 어떤 주교님이 오실지 궁금하기 이를테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 분을 잘 알고 그 분도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전주교구 사제단 중의 한 분이 새로운 우리 주교님이 되셔야 할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술정이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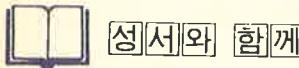
두번이나…

● 사순절 특집 ①

사순절의 의미와 유래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창세3, 19참조). 제의 수요일에 신자들은 이마에 흙을 상징하는 재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 사순절은 부활대축일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기도와 보속과 사랑의 실천으로써 내적 쇄신을 이루는 일종의 “40일 피정”이다. 이 “피정”동안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빠스카 신비에 깊이 잠겨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살고 체험하려고 한다.

사순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 대축일에 이어지는 뜻이 있으며 부활로서 완성된다. 역사적으로 사순시기는 초대 교회시대부터 3세기 초까지는 없었다. 다만 부활 전 2~3일 예수의 수난을 기억하여 단식을 하루 이틀 정도, 길어도 일주일 정도 실시했을 뿐이었다. 그후 니케아 공의회(325년) 부터는 기간을 지켰으며, 그레고리오 교황(604년) 때는 제의 수요일부터 40일간을 준비하게 되었다.



37. 성서의 언어(B) : 70인역 희랍어 성서

알렉산더의 정복으로 희랍어가 팔레스티나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언어는 상업과 일반행정을 위한 언어였다. 자기네 종교적 전통에 충실했던 히브리인들은 희랍 종교와 문화를 배척했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유통되던 희랍어를 외면하고 살 수 없었다.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어지는 역사적 변천 과정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지중해 연안에 널리 퍼져 살게 된다. 이 현상을 희랍어로 “디아스포라”(분산)라고 부른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성서를 읽기 위해 자기네 언어 히브리어를 고수하려 애썼다. 그러나 일상용어가 희랍어였던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고집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로마인들이 지중해를 장악한 이후에도 희랍 문화와 희랍어는 여전히 지중해 연안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잔존하였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성서를 희랍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처음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회당에서 비공식적으로 통역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기원 전 3세기 이후부터 구약 성서의 몇몇 부분을 희랍어로 번역한 사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사서, 데메트리우스가 프톨레메오 2세(285~246)에게 접근하여 알렉산드리아의 왕립 도서관이 유대 율법의 번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추겼다고 한다. 이 제안에 동의한 왕은 예루살렘의 대사

40일간의 사순시기는 늦어도 4세기 말에 동서양 교회에서 지내게 되었다. “40일”이라는 일수는 주님께서 공생활 전 40일간 단식하며 기도했던 사실에서 유래한다. 다만 40일의 계산방법은 처음에 동방과 서방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동방에서는 토요일과 주일을 빼고 8주일로 했으나 로마를 위시한 서방에서는 주일만 빼고 6주일에 4를 더하여 40일로 했다. 아리하여 사순절은 부활 대축일 6주전 수요일(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사순절의 주일은 다섯주일이 있으며, 이 시기를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통회와 단식에 중점을 두는 기간(제1, 2주간), 세례 준비에 중점을 두는 기간(제3, 4, 5주간), 예수의 수난을 집중적으로 되새기는 기간(성주간) 등 세 부분이며 제6주일은 주의 수난(성지)주일로서 “성주간”이 시작되고 “예수 부활 대축일”로 정점에 달한다.

제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번역사들을 차출하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모인 72명의 유대 번역사들은 파로스섬에 들어가 72일 동안 작업을 하여 희랍어 번역본 성서를 완성시킨다. 이 번역본을 읽은 왕은 깊은 감동을 받고 번역들에게 후회 사례한다.

이상의 전설적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전설로부터 희랍어 번역본 성서의 이름이 결정된다. 라틴어로 “헵투아진타”(70)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70이라는 숫자는 이미 출애 24장에 등장한다. 거룩한 산 위에 모세와 더불어 함께 모인 70명의 원로들의 숫자가 바로 그것이다. 루가 10장에도 70명의 제자들이 등장한다. 전설에 나오는 72명의 번역사들의 수효를 최대 근사치인 전통적인 숫자 70과 연결시킨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모세오경이 희랍어로 번역된 시기는 전설에서처럼 기원 전 3세기였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책들은 3세기 이후 백 여년에 걸쳐 번역되었는데 어떤 번역들은 희랍적 사고방식과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번역들은 희랍의 정신문화와의 완전한 동화를 시도했다.

이 희랍어 사본은 히브리어 사본보다 성서 본문이 몇 권 더 많다. 이 덧붙여진 책들은 원래 희랍어로 써어진 것들이다. 이 부분을 개신교에선 외경이라고 하여 정전에서 삭제했고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이라고 하여 받아들였다.

교사초빙

- 과목: 수학(유경현자 화영)
- 구비서류: 이력서 1부, 호석등본 1부, 자격증(사본) 1부, 대학교 성적증명서(전학년) 1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제출처: 해성고등학교 서무과(3-2958)
- 제출마감: 1989년 2월 22일 오후 5시

학교법인 해성학원

축
개
밀
업
알
머
리
방

양승란(마리아)

전주시 효자동 1가 205-1

☎ 87-0289

한복
약혼·무용·파티·결혼
고려주단

전광원(마르코)

김삼례(소피아)

전주시 고사동(신흥예식장 골목)

☎ 6-1902

장 깐!

—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들의 화해를 위한 —

사순절 특별 강연회

사순절은 단순히 금욕과 단식만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회개의 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지난 삶을 철저히 반성하고, 우리의 미래를 참신하게 이끌어 주시려는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실현될 때, 사순절은 뜻 깊은 때가 되리라.

여기 그런 삶을 위해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많은 분들의 참석과 관심을 바란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강의를 허락하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린다.

1. 일 시 : 사순절 매주 화요일(20:00) 2. 장 소 : 천주교 전동교회

3. 주 쇠 : 남전주지구 사목 협의회

4. 강의내용

일 시	주 제	강 사
2. 14	출애굽의 현대적 의의	제정구 선생
2. 21	교회의 발전적 변화	한용희 교수
2. 28	참된 자기 회개	조철현 신부
3. 7	사회변혁의 주역들	정일우 신부
3. 14	십자가와 인간해방	김승오 신부

교 구 소 식

※ 박정일 주교님 마산교구장 착좌식 : 2월21일 오전10시30분 성지여자고등학교 강당

1. 본당 청소년부장·차장 연수 : 19일(일) 오전10시~오후5시 가톨릭센타 회비-1인 당 3,000원

2. 골소회장 연수 : 22일(수) 오전10시~4시 가톨릭센타 회비3,000원

3. 제14기 예비자 교리반 모집(3월중 개강) : 접수처-교구청 교육국(85-0041)

4. MBW「대화」코스 : 2월23일(수)~25일(금) 장소-수류교육관 회비30,000원

접수-교육국(85-0041) 접수순 30명 접결-2월23일(수) 오전9시 가톨릭 센타

5. 혼인강좌 : 26일(일) 회비5,000원 가톨릭센타. 오전9시30분~오후5시

6. 본당명 변경 : 화산천주교회→나바위 천주교회 흐자3천주교회→용머리 천주교회

7. 평화동 성당 수녀원 전화신설 : 87-0229

8. 남성제32차 꾸르실료 교육 : 2월23일~26일 천호피정의 집

※ 회개와 보속을 위한 사순절 미사 : 매일 오전6시 해성학교 순교탑(일요일 없음)

※ 은인을 구합니다 : 동정부부 순교사 유효한과 이루갈나의 생애를 소설화한
“피묻은 쌍백합”이 새롭게 단장되어 출판됩니다.(출판경비 800만원 예정)
이 뜻깊은 사업에 도움을 주실 교우분들께서는 아래 주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 560-09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Tel. 85-0011

천주교 전주교구 교구청 홍보국장 권 이 복 신부

고도의 기술, 선명한 색상재현

25분 완성

전북칼라현상소

대표 오 희웅 (암부로시오)

전주시 고사동 1가 인근매립 낙동
(오거리) ☎ 83-5335

제 3 기 주부사원모집

대상 : 63년 이후 출생한 근면, 성실
한 여성.기간 : 89. 2. 20~2. 27 (서류전형후
추후면접)

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각1통)

제출처 : 전주지사

서노송동 597-4 (4층) 시창군

주식회사 생그린

自然에서 배운 美學

生그린(한방의 슬기)

미용학과, 화장품학

한방의 의학적 효능으로 完成하였습니다.

그린터치(Green touch) 3 무 선언!!

무색, 무취, 무독(無色, 無臭, 無毒)

전주지사 : 전화 (0652) 86-2714 · 83-7289

군산지사 : 전화 (0654) 42-4811 · 42-4424

(주) 생그린 전주지사 대표 박 유신(요새)



교육국 직원채용

1.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 본당 신부 추천서
- 교직사본

2. 자격요건

- 남자
- 영세 만 3년 이상
- 전주시내 거주자
- 군필 또는 면제자

3. 접수마감

2.25(토) 정오까지
교구청 교육국

4. 면접 : 개별통지

사무원모집 (여성)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세례증명서(영세한지 3년이상 된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 제출기한 : 24일(금) 오후5시

• 면접일 : 26일(일) 오후4시
천주교 숲정이교회 사목회

성체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생명의 뼈’입니다.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황 인 규
사무실 77-1711 보좌신부 최 용 준
수·유 77-1712 사목회장 황 의 옥

※ 사운절 불우형제돕기운동 : 성미·성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에비자모집 : 2월 한 달 정성껏 인도바랍니다.

1.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 : 오늘 공식미사후
2. 십자가의 길 : 매주(금) 어머니미사후 저녁미사후
3. 초등부 종업식 및 출업식 : 오늘 어린이미사후 초등부어린이연중 교리교체 - 청원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찾습니다.
4. 오월의 마돈나꼬마씨름 : 단장 - 김인중(미카엘) 부단장 - 이태호(마르첼리노)
5. 유아세례 : 24일(금) 9시30분까지 꼭 나오세요.
6. 모임 : 하늘의 문 꾸리아 - 오늘, 오후2시 성체회 - 24일(금) 어머니미사후
7. 공소미사 : 다음주일(26일) 오후4시30분
8. 재속현체회 축회및 하루회정 : 다음주일(26일), 오후2시, 중앙성당, 2층원
9. 중·고학생 모악산동반 : 오늘, 학생미사후 10. 대학생회 : 매주(화) 오후6시, 교리실 신입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난주봉헌금 : 1,389,050원 □ 교무금 : 697,500원

*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월 수 해
사무실 사목회장 소 원 영
수녀원 76-0961

☆ 환영합니다 : 민에로니모 수녀님

1. 오늘은 선교주간 : 꾸리아 회의 - 오후 2시
2. 차주는 예령주간 : 선령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3. 안나회 모나키회 월례회 : 2월 24일 오전10시 미사(저녁미사 없음)
4. 금오후회 : 20일 오후 6시(문차상 형제대)
5. 금성회 : 차주공식미사후 6. 금임회 : 차주 공식미사후
7. 청소년부정, 차장 연수 : 오늘 오전10시 센타
8. 판공성사 : 미사 전, 후에 오세요.
9. 금주전례 : 해설 - 신동철 봉헌 - 장준식 부부 복사 - 이창성, 임영수 기도 - 60만 61만 62만
10. 차주전례 : 해설 - 박영근 봉헌 - 장수택 부부 복사 - 이대용, 김인선 기도 - 63만 64만 65만
11. 미사안내 : 정의의 거울 pr. 차주 - 인자하신 모친 pr.

□ 지난주 봉헌금 : 새벽 144,650원 (147명) 공식 550,080원 (591명)

저녁 129,870원 (169명) 합계 : 824,600원 □ 교무금 : 737,000원

*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 태 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 상렬
수·유 72-1222

1. 성모회 : 공식미사후(2층 회의실) 2. 구역장·반장모임 : 22일 오후2시 3. 전례분과 모임 : 23일(목) 저녁미사후
4. 젊은이들 만남의 날 : 24일(금) 저녁7시
5. 고백센서 : 25일(토) 특전미사후(순남 신부님)
6. 로고스 청년 성가대 일원 개편 : 수고하시겠읍니다. 단장 - 강석우 부단장 - 문인자 총무 - 김영 윤선미 성가연습 - 매주 금요일 오후7시
7.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셔요 : 임마누엘 수녀님 목포 북교동 성당으로 가십니다.
8. 본당신축공사에 정성을 모읍시다 : 신입총액 57,560,000원
9. 금주전례 : 해설 - 박기자 독서·복사 - 사목회 기도 - 덕진20반
10. 차주전례 : 해설 - 정석의 독서·복사 - 성가정회 기도 - 성가정회
11. 금주본당청소 : 동신자의 모후Pr - 25일 오후2시

□ 지난주봉헌금 : 875,370원 □ 교무금 : 856,000원

*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 순 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 영 철
수녀원 77-4212

※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분(밸라랫다) 수녀님

1. 신설분당을 위한 2차현금 : 26일
2. 모임 : 오늘 공식미사후 - 구역장회의 20일 - 민천시오회 차주공식미사후 - 애덕회, 애령회, 청년회
3. 구역미사(21일) : 동산7구역 4. 나눔진치(22일) : 내동
5. 구역모임(24일) : 나반 - 동산4,8구역 동산6,동산7 농원 원동 광복2,4 팔복5 성터
6. 중·고생 등계회 : 일시 - 25일(토) 장소 - 내동공소
7. 꾸르실로교육(남성32차 - 23일부터 친호) : 박봉래(오한)
8. 흔인강회(26일 선타) : 미현남·여는 꿀히 교육을 받을 것.
9. 금주청소 : 배끼의 모후Pr. 차주 - 증거자의 모후Pr
10. 금주전례 : 해설 - 한기침 독서①엄배군 ②전점술
11. 차주전례 : 해설 - 김택천 독서①조용기 ②김점순

□ 지난주봉헌금 : 327,000원 □ 교무금 : 308,000원

□ 수요현금 : 70,340원

※ 북전주교령 자매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관할 본당으로 교적을 옮겨 사목적 배려를 받으시다.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 성 팔
사무실 4-2214 사목회장 박 병 열

* 서신동

※ 벽돌헌금 및 폐품수집 : 우리들의 정성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 에비자 교리안내 : ①본당 신부님반-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저녁7시30분 ②전교사님 반-매주 금요일 오전10시30분 저녁7시30분 매주 일요일 - 공식미사후

1. 철야 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10시30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주일학교 출업식 : 오늘(19일) 어린이 미사후

금주모임 : 꾸리아 - 공식미사후 차주모임 : 방주회 - 공식미사후

금주본당청소안내 : 애덕의 모후 차주 - 사랑하려 모후

금주미시안내 : 사랑하려 모후 차주 - 인자하신 어머니

금주미시전례 : 해설 - 김남곤 독서①김숙철 ②오영순

차주미시전례 : 해설 - 김남곤 독서①김영복 ②이한은

□ 지난주봉헌금 : 293,970원 □ 교무금 : 124,500원

* 송천동

사제관 74-8873 주임신부 김 태 윤
사무실 74-1004 사목회장 소 병 을
수녀원 4-1142

1. 꾸리아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후

2. 물뜨레이 : 21일 저녁미사후 · 전례분과 모임 - 22일 저녁7시

3. 초·중·고 출업식 : 25일

4.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후

5. 미사시간변경 : 수요일 저녁7시에서 오전10시로 바꿈

6. 오늘은 교우금봉헌주일 : 89년도 교우금 정성껏 신입바랍니다.

7. 금주본당청소 : 송천10구역 25일 오전11시

8. 금주전례 : 해설 - 이경창 독서 - 박종환 부부

기도 - 이기임 박복자 백영신

차주전례 : 해설 - 김평자 독서 - 이종남 부부

기도 - 이순옥 안방순 최홍섭

□ 지난주봉헌금 : 398,420원 □ 교무금 : 356,880원

*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 궁 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 규 철
수녀원 3-9567

※ 떠나시는 문안젤라수녀님(노원본당) 이데레사수녀님(평리본당) 사무원 임마리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새로이 오시는 한 가티리나 수녀님(성지본당) 이수산나 수녀님(본원) 빙갑습니다.

1. 오늘 : 2차현금 있음. 청소년분과 광장·차장 연수(센타에서) 모임 - 꾸리아, 12사도회, 요한회, 초등부 6년 출입식, 초등부주일학교 개학 2. 꾸르실로(남32차) : 23일 - 26일 김영채, 이종희, 김진섭

3. 25일(토) : 제대회(오전10시) - 중고등부주일학교개학(신입생환영식) 유아세례, 병자방문 4. 다음주일 : 중고등부 동반대회(무악산) 5. 금주본당청소 : 화-순교자의 모후 토-상아보답

6. 시무원모집 : 제출서류는 주보광고란 참조바랍. 제출기한 - 24일 (금) 며칠일 - 26일(일) 오후4시

7. 미사안내 : 상아보답 8. 미사해설 : 이종상

9. 금주전례 : 독서 · 기도 - 박종윤 고영숙

봉헌 · 기도 - 김경주 김숙현

차주전례 : 독서 · 기도 - 홍성조 김희숙

봉헌 · 기도 - 황준우 양희숙

□ 지난주봉헌금 : 402,630원 □ 교무금 : 236,000원

* 인후동

사제관 86-8876 주임신부 서 용 복
수녀원 86-8875 사목회장 정 수 일
사무실 86-5022

1. 안나회 월례회의 : 19일 공식기사후

2. 춘계등반대회및 아유회 : 일사 - 3월1일 오전9시출발 장소 - 내면산 회비 3,000원 대상 - 남자선사 접수마감 - 26일까지 사무실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기도하면서 사운절을 지냅시다.

4. 미사시간 업수하세요. 미사시간내 : 현관참고

5. 초등부 고학년 피질 : 24일 오전9시 회비 1,000원 대상 - 4,5학년 남·녀 학생 자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7. 자모회월례회의 : 23일 어머니미사후

8. 사운절 동안 극기 희생한 데 : 뒤편 봉헌함에 봉헌합니다.

9. 금주미사안내 : 중거자의 모후, 다음주안내 - 애덕의 모후

10. 다음주모임 : 꾸리아 월례회의 26일2시 강당

□ 지난주봉헌금 : 849,470원

□ 성전신축을 위한 2차현금 : 376,490원 협조에 감사드립니다.